

##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문진영

(서강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효시로 불리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해하고, 이 역설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첫째, 행복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이스털린의 관찰을 파악하고, 그리고 셋째,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을 설명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주로 욕구이론가들이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에 대해서 이스털린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행복과 소득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인식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제4장에서는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 논쟁을 제1절에서 욕구이론의 입장, 그리고 제2절에서는 행복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제3절에서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이스털린 역설, 행복 경제학, 삶의 만족도, 만족점, 적응성, 상대소득 가설, 과거소득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 상호의존적 선호, 열망의 쳃바퀴, 욕구이론, 욕구-충족 모델, 문화의 관성적 성분, 화폐의 한계효용 체감.

\* 이 연구는 2010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1011018).

## 1.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행복도 커질 것인가? 이 질문은 18세기말 공리주의 철학이 자본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행복(삶의 만족도, 안녕, 효용 등)<sup>1)</sup>을 소득의 함수로 이해하여, 한 개인이나 국가의 소비능력이 향상되면 그 개인이나 국가공동체의 행복도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계,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국가의 행복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듀센베리(James Duesenberry, 1949)의 상대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득으로 발생하는 행복은 첫째, 준거집단(reference group)과의 비교를 통한 소득분포 상의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둘째, 자신의 과거소득과의 비교(habit formation)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경제가 성장하여 모든 국민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 한 개인의 상대적 지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수요충족의 기대수준이 같이 높아지는 '적응기대감(adaptive expectations)'<sup>2)</sup> 때문에 소득의 절대량의 증가는 행복의 증가와 별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대인의 '소비 규범(consumption norm)'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Easterlin,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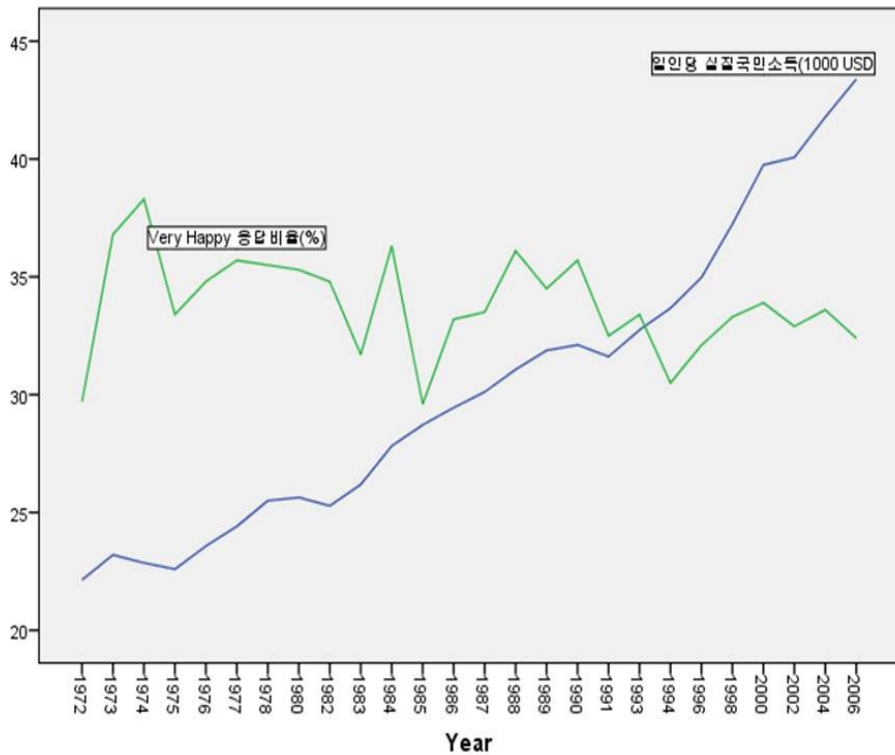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2005년 가격기준)은 1972년부터 2006년까지 약 2배 정도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very happy)"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러한 상대적 소득 가설에 입각하여 이스털린(R. Easterlin, 1974)은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19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을 묻는 서베이 자료(1946년~1970년)를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과 행복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평균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할 경우에는 소득과 행복의 상관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낮은 국가의 국민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 국가의 국민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경우,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1)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행복과 이의 이웃 개념에 대해서는 제2장 제1절에서 다루고 있다.

2) 적응기대감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행복 적응(happiness adaptation)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이 부가되어도 더 이상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Tella and MacCulloch(2008)을 참조하십시오.

밝혔다(Easterlin, 1974: 118).



자료: 일인당 실질국민소득(Johnston and Williamson, 2011)  
 “매우 행복하다” 응답비율(General Social Survey, 1972-2006)

[그림 1] 미국의 소득증가와 행복의 관계(1972-2006)

다시 말해서 이스털린은 ① 일정 시점에서 분석해보면(cross-section analysis),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행복한 반면에, ② 시계열적인 분석을 해보면(time series analysis),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층적인 분석과 시계열적 분석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라고 칭한다(Easterlin, 2010: 22464). 1974년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전통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을 다루지 않았던 경제학계에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20세기말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sup>3)</sup>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행복경제학은 행복을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사회학, 심리학 등 여타의 사회과학 분야와 연계하여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그리고 복리(well-being)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002년 이스털린이 편집한 행복경제학 총서(Happiness in Economics)가 발간되었고, 이후 최근까지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효시로 불리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해하고, 이 역설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사전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첫째, 행복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둘째, 이스털린의 관찰을 파악하고, 그리고 셋째,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을 설명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쟁은 주로 욕구이론가들이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에 대해서 이스털린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행복과 소득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반에 걸친 인식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제4장에서는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라는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논쟁을 (1) 욕구이론의 입장과 (2) 행복의 상대주의적 입장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족점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에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만족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행복이 상대적이라서 만족점이 존재한다면, 국민경제의 운용을 균형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만족점의 존재여부에 대한 연구는 국민경제의 기본방향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여러 이슈들, 예를 들자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 체제재편 등과 같은 논쟁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행복에 대한 해석

‘행복’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행복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시도한 사람은 벤담(J. Bentham)일 것이다. 그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도덕과 입법에 관한 원칙』(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 and Legislation, 1948: 70)에서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그의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hedonistic)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밀(J. Mill) 역시 그의 저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 1957: 10)에서 “도덕, 효용(utility) 혹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바탕에 깔려있는 교의(敎義)는 모든 행동은 행복을 증진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정의롭게” 된다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결국 행복이란 향유하는 자의 의도된 쾌락(intended pleasure)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absence of pain)를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상태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행복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favorable assessment of the past)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good prospects for the future)을 포함”하며 ”본질적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retrospective)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prospective)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Tatarkiewicz, 1966: 1).<sup>4)</sup> 즉 행복이란 현재 상태를 넘어서는 생애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Whole Life Satisfaction: 이하 WL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Tatarkiewicz, 1966; Brandt, 1967; Telfer, 1980; Sumner, 1996). 하지만 이러한 행복이라는 상태가 사회과학에서 개념적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와 유사한 이웃 개념(neighbouring concepts)들과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하고, 둘째, 측정된 자료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행복과 이웃 개념들을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복과 이의 이웃 개념인 효용(utility), 주관적 복리(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복지(welfare)와 같은 개념을 별 구분 없이(interchangeably) 사용한다(Easterlin, 2001: 465).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는 행복(happiness)을 효용(uti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효용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크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경제행위는 개인에 부여된 환경적 제약 속에서 효용(만족 혹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할 경우, 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A는 B에 비하여 선호도 만족(satisfaction of preferences)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개념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사 중의 하나인 미국의 일반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이하 GSS)에서는 1972년 이래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귀하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행복하다(very happy), ② 꽤 행복하다(pretty happy), 혹은 ③ 그리 행복하지 않다(not too happy) 중에서 고르시오”라는 3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와 유럽 바로미터 조사(The Euro-Barometer Survey Series)에서는 4점 척도(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한 편이다, ③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④ 전혀 행복하지 않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갤럽조사(The World Gallop Poll)<sup>5)</sup>와 독일 사회경제 패널(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GSOEP)은 10단계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가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나 삶의 질과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한 외부자(impartial outsider)’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객관적(objective)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subjective)으로 나누어진 다.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길거리 안전(street safety)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면, 주관적인 방법은 그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의 정도를 설문조사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길거리 안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은 사람마다 판단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따

4) 타타르키위츠(W. Tatarkiewicz)의 핵심적인 주장은 행복이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구성요소가 모두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과거에 대한 기억(memory)과 미래를 전망하는 상상력(imagination)이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다(1966: 2).

5) 갤럽조사에서는 설문대상자들에게 10개의 계단이 있는 사다리를 연상시키면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도 단계를 묻고 있다.

라서 외부인이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주관적인 측정방법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Veenhoven, 1996: 2-3).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 기대하는 것이, 경제적 지위나 건강, 가족구조와 인권과 같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을 넘어서서 한 개인이나 국가의 복리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근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의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는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Layard, 2005). 우선 이러한 설문 내용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응답'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sup>6)</sup>, 이러한 조사 자료가 몇 십년간 축적이 된다면 분석 자료로서 의미 있고(타당성과 신뢰성), 비교가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Diener, 1984; Veenhoven, 1996; Easterlin, 2001: 466; 2003: 11176).

## 2) 이스털린의 관찰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된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를 진행시킨 반면에, 경제학자들은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이 자료들을 거의 무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털린은 이러한 주관적 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소득과 행복'의 관련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거의 최초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다(Easterlin, 1974: 90; Oswald, 1997: 1816).

이제는 현대적 고전으로 자리 잡은 이스털린의 연구(1974)는 "경제가 발전하여 나아지면 국민들은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더 행복하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에 속한다. 물론 이스털린 자신도 어떠한 시점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의 구간부터는 국가 간의 행복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 되는, 전형적인 '평탄 곡선(flat of the curve)<sup>7)</sup>'이 나타나게 된다. 즉 소득의 절대적 수준은 소득이 낮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교우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행복의 증가도 수반된다는 경제학 일반의 암묵적인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Easterlin, 1974: 200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정 시점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첫째, 과거 소득에 의해서

6) 예를 들어서 1972년부터 1987년 사이에 실시된 GSS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1% 미만이었다(Easterlin, 2001: 466).

7) 주로 보건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평탄 곡선(flat of the curve)'의 개념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보장에 대한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보건의료 관련 지표 예를 들자면 기대수명과 같은 지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평탄곡선으로 접어드는 소득의 수준을 만족점(satiation poi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lark, Frijters, and Shields (2008: 96)을 참조하십시오.

형성된 습관(habit formation)<sup>8)</sup>과 더불어, 둘째, 동시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 선호(interdependent preferences)<sup>9)</sup>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스털린의 주장은 1974년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상식으로 통하던 근대화론의 기본 가정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후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이스털린 역설의 이론

이스털린은 자신이 주장한 역설에 대해서 이론이 부분하게 되자, 물질과 행복의 관련성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a unified theory)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이스털린은 소득과 행복에 관하여, 경험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향을 제시하고, 이를 소득과 열망수준의 함수로 설명하고 있다(Easterlin, 2001: 472-474).<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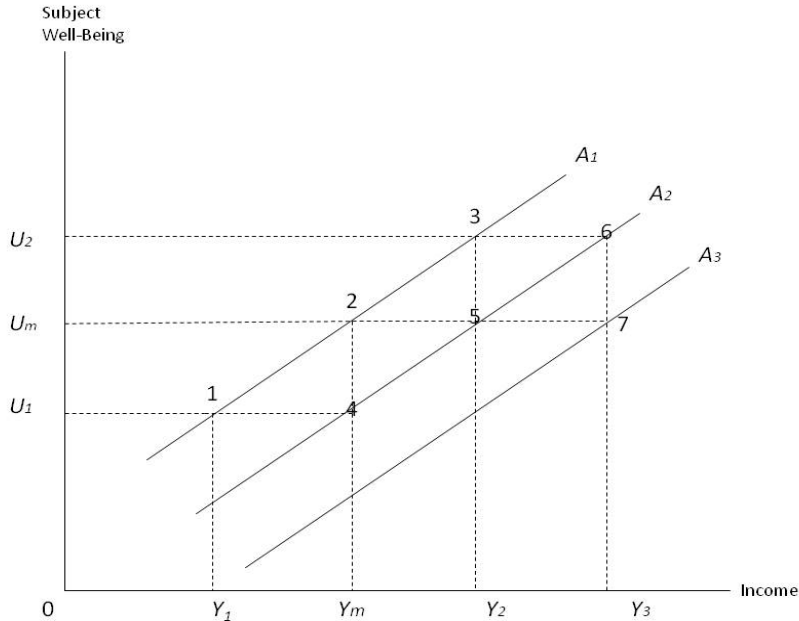
- ① 일정 시점에서 보면,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
- ② 생애과정의 한 시점에서 개인은 과거에는 덜 행복했었지만, 미래는 더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③ 한번 경험된 효용(행복)의 수준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게 지속된다.

---

8) 폴락(R. Pollack, 1970)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소득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용의 수준은, 과거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형성된 물질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9) 한 개인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관적 복리(subject well-being)의 수준은 천차만 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동시대인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신의 주관적 복지는 낮아지게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을 상호의존적 선호도(interdependent preferences)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폴락(Pollack, 1976)과 이스털린(Easterlin, 1995: 36)을 참조하시오.

10) 이러한 소득과 열망의 함수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이스털린(2001: 472-474)에 의존하면서, 설명맥락에 따라서 내용을 부가하였다.



자료: Easterlin(2001), Fig. 2.

[그림 2] 소득과 열망수준(aspiration level) 함수로 본 주관적 복리

첫째,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물질적 기대감(material aspirations)인  $A_1$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 기대감을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은 증가하는데 물질적 기대감이 동일하다면 그림의  $A_1$  효용함수에 따라서 한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질적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A_1 \rightarrow A_2$ ), 같은 소득이라도 체감하는 효용은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림의  $Y_m$ 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A_1$ 의 물질적 기대감을 가졌다면  $U_m$ 의 효용을 가지지만,  $A_2$ 의 물질적 기대감을 가진다면 효용은  $U_1$ 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 $Y_m \rightarrow A_2$ )하면 이에 발맞추어 물질적 기대감도 비례적으로 증가( $A_1 \rightarrow A_2$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인트 2에서 포인트 3으로 움직이지 않고, 포인트 5로 움직이게 된다. 즉 소득이 증가할 경우, 물질적 기대감의 동반상승으로 인해서 효용의 증가가 상쇄되기 때문에 효용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이스털린은 카네만 외(Kahneman et al., 1999)의 ‘열망의 쳃바퀴(aspiration treadmill)’<sup>11)</sup>라고 개념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몸은 계속 움직

11) 열망의 쳃바퀴라는 개념은 브릭만과 캠벨(P. Brickman and D. T. Campbell, 1971)의 ‘쾌락의 쳃바퀴(hedonic treadmill)’ 혹은 ‘쾌락 적응(hedonic adaptation)’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개념



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첻바퀴(treadmill)'처럼 절대적인 소득이 늘어나도 동시대인의 소비열망이 증가한다면 행복은 자기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asterlin, 1995: 35-37).

둘째, 소득이  $Y_m$ 에서  $Y_2$ 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물질적 기대감도  $A_1$ 에서  $A_2$ 로 증가할 경우, 포인트 2에서 포인트 5로 움직이기 때문에 효용은  $U_m$ 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과거 소득( $Y_m$ ) 시점의 만족도(효용)를 물어보았을 때 그는 과거의 물질적 기대감( $A_1$ )이 아닌 현재의 물질적 기대감( $A_2$ )으로 과거의 소득수준( $Y_m$ )을 판단하기 때문에 효용은  $U_1$ (포인트 4)으로 낮아진다. 미래의 효용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물질적 기대감으로 미래 소득의 효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효용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 5에 있는 사람에게 미래의 소득증가에 따른 효용에 관해서 물었을 때, 그는 현재의 물질적 기대감( $A_2$ ) 효용함수에 따라서 효용은  $U_2$ 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Y_3$ 의 소득을 갖게 되는 미래 시점에서는 물질적 기대감 역시  $A_3$ 로 높아지기 때문에 효용은  $U_2$ 가 아니라  $U_m$ (포인트 7)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효용함수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결정 효용(decision utility)과 경험된 효용(experienced utility)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결정효용은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사전(*ex ante*) 만족도를 말하며, 경험된 효용은 실제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후(*ex post*) 만족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그림에서  $Y_2$ 의 소득을 가진 포인트 5에 있는 개인에게 만약 현재에 5년 전과 같은 소득( $Y_m$ ), 혹은 5년 후의 소득( $Y_3$ )을 가질 경우, 사전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결정 효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아지면 효용도 낮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효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물질적 기대감도 증가하기 때문에(if  $Y_m \rightarrow Y_2$ , then  $A_1 \rightarrow A_2$ ) 소득의 증가는 효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 $U_m$ )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험된 효용(experienced utility)이라고 한다.

### 3.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논쟁

1974년 발표된 이스털린 역설은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던 근대화 테제, 즉 생산조직을 근대적으로 개편하면 물질적 생산이 증가하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와 권리를 주어서 결국 사회 전체의 복권이 높아진다는 가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스털린 역설은 우회적이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에 해당하는 이 역설을 둘러싸고 다양

---

은 아주 기쁜 사건이나 매우 상심한 사건이 일어나도 곧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행복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권과 같이 우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어도, 곧 기대수준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논쟁이 벌어져 왔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쟁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빈호벤의 비판: 욕구-충족(needs-gratification) 모델*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 최초로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빈호벤일 것이다.<sup>12)</sup> 그는 자신의 논문(R. Veenhoven, 1991)에서 이스털린 역설의 핵심테제인 '행복의 상대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이 테제의 허구성을 날날이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Veenhoven, 1991: 25-30).

- ①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행복은 적응수준(adjustment standards)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③ 행복은 자의적인 정신세계(arbitrary mental construct)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첫째, 한 개인의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그 개인에게 현존하는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needs-gratification) 결정된다(Veenhoven, 1991: 26-27).

둘째, 욕구(needs)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거나, 혹은 개인의 적응수준에 따라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래적(生來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Veenhoven, 1991: 27).

셋째, 블릭맨과 캠프벨(Brickman and Campbell, 1971)은 (행복에 대한) 적응감을 지각(sensations)에 적용되는 적응수준이론(Adaptation Level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차원이 전혀 다른 지각과 행복을 동일차원일 것으로 유추한 오류의 결과이다(Veenhoven, 1991: 31). 이렇듯, '행복의 상대성' 테제가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털린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이유로 개념적 혼란, 유추(analogy)에 의한 오류<sup>13)</sup>, 예외적 케이스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 인지적 설명에 대한 편견 등을 들고 있다(Veenhoven, 1991: 30-32).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욕구 이론(needs theory)<sup>14)</sup>에 기초하고 있다. 욕구이론의 기본가정은 소득수준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재화와 용역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need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5)</sup> 그리고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

12) 이스털린의 주장에 대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비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으로 정면에서 이루어진 비판은 빈호벤(1991)이 최초일 것으로 판단된다.

13) 예를 들어서 블릭맨과 캠프벨(Brickman and Campbell, 1971)은 지각(sensations)에 적용되는 적응수준 이론(Adaptation Level Theory)을 행복에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빈호벤에 따르면 실제 지각과 행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Veenhoven, 1991: 31).

14) 욕구이론(needs theory)은 사회심리학자인 마슬로우(A. Maslow, 1970)의 인간 욕구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복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욕구가 더 많이 충족되면 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Schyns, 1998: 8)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는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것이다(needs-gratification model).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갑(甲)의 경우, 동시대의 사람들도 모두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할 때 위안(contentment)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갑의 행복이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이스털린의 방어: 일본의 사례와 문화적 관성*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이스털린(Easterlin, 1995)은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딴 '이스털린 역설'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명하고<sup>16)</sup>,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행복의 상대성'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스털린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물론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일본은 이스털린 역설이 보다 생생하게 입증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1958년 일본인의 평균소득은 1991년 기준으로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에 비하여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1958년 이후 1987년까지 약 20년간 일본인의 실질소득은 5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고도의 소비사회로 변모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일본인의 주관적 복리의 수준은 결코 높아지지 않았다(Easterlin, 1995: 38-41). 더욱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중요하다면, 일본의 최하위 소득집단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행복도 증가하여야 하는데,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987년의 최하위 소득집단의 소비능력은 1958년 당시의 최상위 소득집단과 거의 같거나 우월할 정도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한편 이스털린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소득 이외에 그 사회의 규범(norm)이나 문화의 측면에 주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선진국 9개국<sup>17)</sup>을 대상으로 시계열적(1973년~1989년) 국제비교를 한 결과, 1973년 첫 조사 당시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이후에도 거의 유지되어, 국가 간 순위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asterlin, 1995: 39, Fig. 2 참조). 이러한 현상을 이스털린은 '문화적 관성(durable cultural component)'으로 설명하는데, 각 나라마다 주관적 복지에 관해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소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Easterlin, 1995: 42).<sup>18)</sup> 결국 이스털린이 주장하는 논지는 한 개인의 행복을 (절대적) 소득과 물질적 풍요로 설

15)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도  $\alpha$ 라는 소득이 부가되었을 때, 그  $\alpha$ 는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혹은 자선(charity)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어떠한 형태이던 욕구충족의 가능성을 높여서 행복을 증진하게 마련이다.

16) 예를 들자면, '(과거소득에 의한) 습관의 형성(habit formation)', '상호의존적 선호도(interdependence preference)', '상대적 선호 이론(relative preference theory)', '물질적 열망(material aspiration)', '열망의 쳄바퀴(aspiration treadmill)', '적응기대감(adaptive expectations)', '인지된 소득(income perceived)', 그리고 '문화의 관성적 성분(durable cultural component)' 등이다.

17) 이스털린이 국제비교한 9개국은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이다.

18) 이러한 편차는 아마도 언어의 차이, 예를 들자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어별로 약간의ニュ

명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빈호벤과 헤이거티의 반론: 시계열분석*

이러한 이스털린의 '행복의 상대성' 주장에 대해서, 빈호벤은 헤이거티(M. Hagerty)와 함께 시계열 분석을 무기로 다시 비판에 나선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이들은 기존의 시계열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분석기간을 늘리는 한편으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간 영향(short-term effects)과 장기간 영향(long-term effects)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욕구이론(needs theory)에 입각하여 상대적 효용모델(relative utility model)의 가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의 증가는 국민행복(national happiness)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22). 물론 화폐의 한계효용 체감(diminishing marginal utility of money)에 따라서 절대적 소득의 영향력은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사실이지만, 조사대상인 21개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소득의 증가에 따른 행복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 보였으며<sup>19)</sup>, 1개 국가만이 부(-)의 관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은 행복에 대해서 장기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영향력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21-22, Fig. 3 참조).

#### *이스털린의 반박: 분석 자료의 오류*

이러한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비판에 대해서 이스털린(Easterlin, 2005)이 본격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이 다시 가열된다. 이스털린은 국민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헤이거티와 빈호벤(2003)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비판하고 있다(Easterlin, 2005: 430-432). 그는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연구에서 두 변수(소득과 행복) 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7개 국가 중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sup>20)</sup> 그는 1972년에서 2002년까지의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도 소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분석이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분석과 다른 이유로, 이들이 분석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

스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에 거주하는 각 언어공동체의 삶의 만족도는 본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Oswald, 1997: 1819).

19) 두 변수(소득과 행복) 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국가는 미국,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며,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국가는 프랑스이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Table III).

20) 이스털린(Easterlin, 2005: 430)은 1952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에서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는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케니(C. Kenny, 1999)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들이 1970년대 행복이 과소 추정된 non-GSS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득과 행복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Easterlin, 2005: 431). 그리고 이러한 non-GSS 자료의 문제점을 헤이거티와 빈호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72년에서 1974년까지의 자료가 GSS와 합치될 수 없는 non-GSS 자료로서 행복이 과소 추정되었고, 만약에 이 기간을 제외하고 분석하면 두 변수(소득과 행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Hagerty and Veenhoven, 2003: 18; Easterlin, 2005: 432 참조).<sup>21)</sup>

또한 이스털린은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에 대한 반증의 사례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 행복 데이터(World Database of Happiness: 이하 WDH)'를 이용하여 15개 국가<sup>22)</sup>의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1972년~1990년대 초반)한 다이너와 오이시(Diener and Oishi, 2000)의 연구에 따르면, 15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6개 국가에서는 소득과 행복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국가는 6개 국가, 그리고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국가는 3개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의 결론은 이 기간(1965년~1990년대 초반)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행복과 소득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선의 기울기는 평균적으로 평평하게 나타나서,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소득과 행복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한국 사례를 제외하면, 브라질, 인도, 멕시코, 필리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두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Easterlin, 2005: 435-436).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스털린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Easterlin, 2005: 440).

- ①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행복도 증진될 수 있다"는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②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분석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도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 ③ 일본의 사례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가 가져오지 못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비유럽국가로서 일반적인 사례이다.
- ④ 만약에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면, 왜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간에 행복의 차이가 나타나며, 왜 두 변수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국가가 오히려 예외적인 국가가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빈호벤과 헤이거티의 제반격: 행복한 인생 햇수(Happy Life Years)

이러한 이스털린의 비판에 대하여 빈호벤과 헤이거티(Veenhoven and Hagerty, 2006)는 다시 반격에 나선다.<sup>23)</sup> 이들은 자신과 이스털린과의 견해 차이를 같은 사실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의

21) GSS가 통상적으로 행복의 기온이 높아지는 봄에 조사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 데이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2) 15개 국가 중에서 유럽에 속하는 국가는 13개 국가이다.

차이'로 설명하면서,<sup>24)</sup> 그 이유로 행복이라는 변수의 변동 폭이 너무 작은데다가<sup>25)</sup>, 그마저도 오르내림(fluctuation)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찰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Veenhoven and Hagerty, 2006: 422).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호벤과 헤이거티가 제시한 개념은 '행복한 인생 햇수(Happy-Life-Years: 이하 HLY)'인데,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다(Veenhoven, 2004: 13).

$$\text{Happy-Life-Years} = \text{Life-expectancy at birth} \times (0-1) \text{ happiness}^{26)}$$

이런 산식에 의해서 HLY를 측정한 결과, 197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HLY는 5.2년, 유럽의 HLY는 6.3년 상승하였다(Veenhoven, 2005b 자료 참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인들은 경제의 성장과 발맞추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오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Veenhoven and Hagerty, 2006: 433), 이는 이스털린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행기 국가의 예를 들면서 이스털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루블화 위기(the Rubel-crisis)를 맞았던 러시아는 행복지수가 대폭 내려갔지만, 이후에 러시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Veenhoven, 2005a; Veenhoven and Hagerty, 2006: 433-434에서 재인용). 결국 경제의 변영이 국민의 행복을 이끈다는 고전경제학의 명제가 21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의 정리*

한편, 이스털린과 빈호벤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David Blanchflower and Andres Oswald, 2005: 3-4)는 논문발표 당시(2005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행복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27)</sup>

- 23) 2003년도에 발표한 논문의 저자는 헤이거티가 제1저자였는데(Hagerty and Veenhoven, 2003), 2006년 재반론 성격의 논문의 제1저자는 빈호벤(Veenhoven and Hagerty, 2006)이었다.
- 24) 이들은 반쯤 차있는 물 컵을 놓고, 이스털린은 반이 비었다고 해석하는 반면에 자신들은 반이 차있다고 해석하는 그런 차이라고 설명한다(Veenhoven and Hagerty, 2006: 422).
- 25)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변수는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으나, 행복이라는 변수는 최고 점수(예를 들면 3점 혹은 5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26) 예를 들어서 A국가의 기대수명이 80세이고, 10점 척도에서 행복의 평균값이 5점이라면, HLY는 40년(80년 × 0.5)이 된다. HLY값은 일반적으로 20점에서 75점의 분포를 보인다.
- 27)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가 이 내용을 정리한 시기는 2005년인데, 시기적으로 이스털린이 헤이거티와 빈호벤의 비판을 가한 시점은 2005년이고 다시 빈호벤과 헤이거티가 재반론을 한 논문이 발표된 시기는 2006년이다. 하지만 블랜치플라워와 오스왈드(2005)는 심사 기간이 짧은 NBER working paper이고, 이스털린 테제에 대한 논쟁은 주로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학회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개인에게 소득의 증가는 일정한 수준의 행복을 가져온다. 하지만 소득이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아서, 결혼과 같은 사건이 인생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 ② 하지만 국가 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국민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지는 않는다.
- ③ 행복은 나이에 따라서 U자(字) 곡선을 그리며<sup>28)</sup>,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에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인 두 가지는 실업과 이혼이다. 소득을 통제할 경우 교육이 행복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④ 선진국의 경우, 행복 함수의 방정식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즉 선진국은 행복에 관한 유사한 통계 유형을 보이고 있다.
- ⑤ 개인들로 구성된 패널 자료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행복 함수의 방정식 형태를 보인다.
- ⑥ 적응감(adaptation)<sup>29)</sup>은 존재한다.
- ⑦ 상대적인 비교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내용에서 ‘(물질에 대한) 적응감’과 ‘행복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빈호벤보다는 이스털린의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의 상대성 테제를 일거에 뒤집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스티븐슨과 울퍼스의 도전: 행복은 소득과 함께 오르내린다.*

스티븐슨과 울퍼스(B. Stevenson and J. Wolfers, 2008)는 최근까지 축적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서 첫째, 주관적 복지(subject well-being)와 1인당 국민소득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만족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소득의 수준이 중요한 변수를 넘어서서 결정적인 변수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국가 간 비교연구(across countries)와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within countries), 그리고 시계열적(over time) 연구에서 모두 입증되었다고 한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3-4).

또한 행복의 상대성 테제에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일본의 예외성(the Japanese anomaly)<sup>30)</sup>’도 설문 내용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다. 1964년 이전에는 일본의 “국민 만족도 조사(Life in Nation surveys)”에서 최고 만족을 나타내는 설문 문항이 “비록 대단히(innumerably)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내용에서 1964년부터는 “전적으로(completely) 만족한다”로 바뀌는 바람에 이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18.3%에서 4.4%로 급감하게 되었다.<sup>31)</sup> 그리고

28) 어린 시절 높은 수준을 보이던 행복감이 중년이 되면서 낮아지다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29) 보다 정확하게는 적응기대감(adaptive expectations)이다. 본 논문의 주(註) 2 참조.

30) 전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예외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일본의 경우를 말한다.

31) 이하 두 번째로 만족을 나타내는 설문내용도 1964년을 기점으로 “비록 나의 삶에 만족스럽지는 않

1958년부터 1969년까지는 '가정생활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1970년부터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으로 초점이 바뀌었으며, 1992년에 설문조사 질문내용이 다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일본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설문내용에 따라서 일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4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①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② 새로운 질문이 첨가된 1964년을 기점으로 1969년까지 역시 상승하다가, ③ 1970년부터 1991년까지는 천천히 상승하였는데, ④ 새로운 질문 내용이 첨부된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49). 이러한 일본인의 삶의 만족도의 궤적은 일본 경제의 성과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기에는 삶의 만족도도 급상승한 반면에, 경제 호황이 안정된 시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경제침체기로 접어들면서는 떨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의 증감(增減)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다.

#### *이스털린의 재방어: 장기적 분석의 결과*

이러한 스티븐슨과 울퍼스의 비판에 대하여 이스털린(2010)은 다시 반격에 나서는데,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스티븐슨과 울퍼스의 분석은 단기적인 관련성(short-term relationship)만 입증하였을 뿐, 장기적인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소득과 행복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스티븐슨과 울퍼스(2008)는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해서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정(+ )인 관계임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장기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32개 국가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이행기 국가를 제외하면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17개 국가 중에서 헝가리(낮은 경제성장과 낮은 행복도 증가)와 한국(높은 경제 성장과 높은 행복도 증가)의 사례를 제외하면 이 역시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는 것이다(Easterlin., 2010: 22465-6).

지금까지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이 구사한 개념과 분석방법은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정책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스털린 역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입장을 가지고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스털린 역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역설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만족점(satiation point)'의 존재 여부로 보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논쟁을 재편하고자 한다.

---

지만, 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다"에서 "비록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나의 삶에 만족하는 편이다"로 바뀌면서 응답률의 변화가 있었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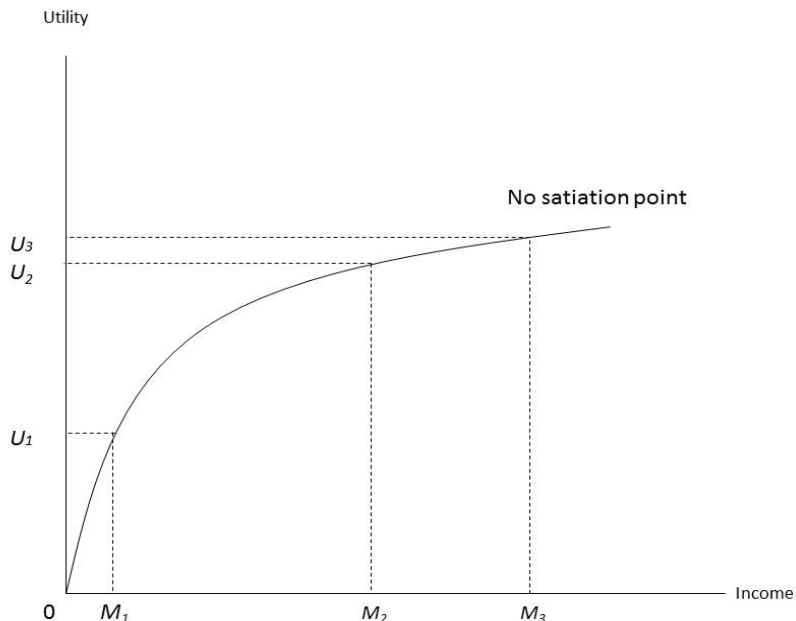


#### 4. 만족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는가?

이스털린이 주장하는 행복의 상대성 테제를 정리하자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소득이 부가되어도 행복이 증진되지 않거나, 증진되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어느 일정 시점에 이르게 되면 행복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소득의 일정 시점'이 만족점(satiation point)이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만족점의 존재 여부를 논쟁의 형태로 정리하고자 한다.

##### 1) 욕구이론의 입장

만족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욕구이론(needs theory)에 의하면, 아무리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소득이 부가되면 미미하나마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효용함수 [그림 3]에 의하면, 소득이 전혀 없을 때  $M_1$ 이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해당되는 효용은  $U_1$ 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의 증가폭은 둔화되어, 즉 화폐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M_2 \rightarrow M_3$ 으로 소득이 증가하여도 효용은  $U_2 \rightarrow U_3$ 으로 미미한 증가폭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도 미미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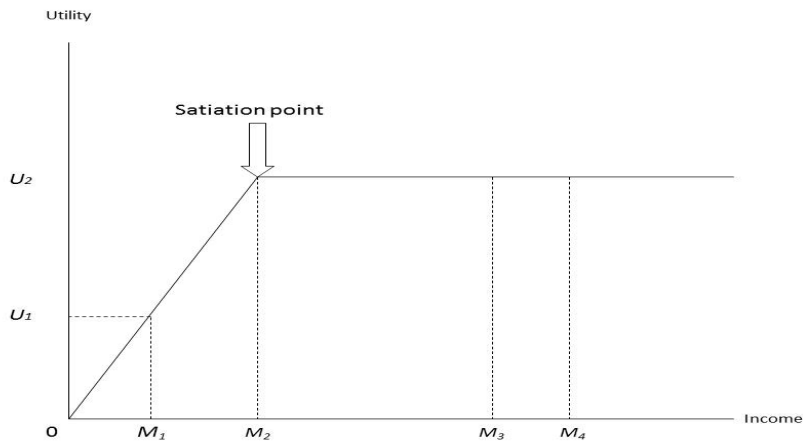
[그림 3] 욕구이론 함수

이러한 욕구이론에 입각하여, 스티븐슨과 울퍼스(B. Stevenson and J. Wolfers, 2008)는 주관적 복지(subject well-being)와 1인당 국민소득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만족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족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수준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부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복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디톤(A. Deaton, 2008)은 123개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을 로그(logarithm)로 처리할 경우,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거의 선형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일정 소득 이후(기본욕구 충족)에는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만족점 이론보다는 브라만 이론(the Brahmin Theory)<sup>33)</sup>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이상의 소득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발전을 누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결국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Deaton, 2008: 57-8).

## 2) 행복의 상대주의적 입장

아래의 효용함수 [그림 4]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M_1$ 의 소득을 가지게 되면, 이  $M_1$ 의 효용은 급상승하여  $U_1$ 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소득이  $M_2$ 로 증가하기까지 효용은  $U_2$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M_2$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M_3$ 가 되거나  $M_4$ 가 되어도 효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U_2$ 에 머무르게 된다. 여기에서 만족점은  $M_2$ 가 되는 것이다.



[그림 4] 만족점 함수

32)  $R^2 = .694$ , Coefficient = .838, Deaton(2008) Table 1 참조.

33) 브라만 이론은 1938년 로빈스(L. Robbins)의 논문에서 “브라만 계급은 불가촉 천민에 비해서 10배나 더 행복해질 능력이 있다”는 언급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행복의 상대주의적 입장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다. 전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결코 높아지지 않았다. 즉 적어도 전후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만족점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위의 [그림 1] 참조). 하지만 만족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욕구이론가인 스티븐슨과 울퍼스는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난감한 나머지, '수수께끼 같은 예외(a puzzling outlier)'라고 표현하였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36). 이후에 저자들은 보스턴 글로브<sup>34)</su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부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의 미국인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직접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타당성 있는 변수 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더욱이 제1장의 [그림 1]에서와 같이, 197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인의 절대적인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행복이 증진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불평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스털린은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중국과 칠레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와 단선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장기적인 분석을 해보면, 중국과 칠레의 경우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오히려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미미하나마 떨어진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였던 1980년도였기 때문에, 즉 워낙 낮은 삶의 만족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연속적인 네 번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소량이나마 떨어졌다(Easterlin, 2010: 22467). 결국 한국 경제가 물질적 결핍에서 해방된 1990년 이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세를 멈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만족점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3) 만족점 논쟁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

이스털린 역설을 둘러싼 '소득-행복' 논쟁은 지난 산업화 기간 중에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21세기를 넘어선 현재에도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이데올로기가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성찰의 계기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털린 역설은 우리에게 과연 언제까지 발전주의 시대의 유산인 대기업 위주의 불균등 성장(uneven growth)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욕구이론가(needs theorist)들은 높은 경제성장이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여전히 경제성장 정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욕구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만족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량중심

34) The Boston Globe, 2008년 11월 23일자.

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되면 될수록 행복은 증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가 더 이상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만족점이 존재한다면, 국민경제의 운용을 균형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상대적인 것이라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물량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특히 불균등 성장 전략은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전략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행복지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과 행복의 매트릭스(income-happiness matrix)에서 만족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필수품(basic necessities)만 해결이 된다면 그 이상 소득의 부가는 행복의 증가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예를 들어서, Di Tella and MacCulloch, 2008<sup>35)</sup>; Lane, 2000), 머레이(C. Murray 1988: 65)는 그 수준을 1인당 국민소득 \$5,000(1978년 불변가격)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케니(C. Kenny, 1999: 12, 19)는 1990년 실시된 인구조사 데이터(poll data)를 이용하여 약 \$8,000을 제시하였고, 레이야드(R. Layard, 2003: 17)는 한 국가의 1인당 평균소득이 \$15,000(1990년대 후반 기준)이 넘어가면, 행복의 수준과 별 상관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p>36)</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미국의 만족점과 최저생계비의 비교

(단위: \$)

연도	만족점(A)	해당연도 1인당 GDP(B)	A/B	2005년도 만족점* (C)	2005년도 빈곤선(D)‡	C/D
1978*	5,000	10,303	48.5%	12,368	9,570	129.2%
1990**	8,000	23,185	34.5%	11,078		115.8%
1999***	15,000	33,485	44.8%	17,288		180.6%

\* Murray, 1988; \*\* Kenny, 1999; \*\*\* Mayard, 2003

† 2005년 1인당 GDP에 해당 비율(A/B)을 곱하여 구하였음.

<http://www.measuringworth.org/usgdp/> 참고.

‡ HHS poverty guideline(1인 가구) 기준 <http://aspe.hhs.gov/poverty/05poverty.shtml> 참고.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인들의 만족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15%에서 180%의

35) Di Tella and MacCullar(2008)는 독일의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서 소득의 적응감(adaptation)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적응감에 대해서는 본 고의 주(註) 2를 참조하시오.

36)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의 하나인 리처드 레이야드(R. Layard)는 2003년 3월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거행된 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에서 "Happiness: Has Social Science A Clue?"라는 큰 제목 하에 세 번의 기념비적인 연설(Lecture 1: What is happiness? Are we getting happier?: Lecture 2: Income and happiness: rethinking economic policy: Lecture 3: How can we make a happier society)을 한다. 소득 만족점이 \$15,000(1990년대 후반)이라는 내용은 첫 번째 연설에서 나오는데, Inglehart and Klingemann(2000) Fig. 7.2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족점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최저 생계비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의 증가보다는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national minimum)의 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제도(Basic Income)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sup>37)</sup>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본적 사회수요(basic social necessities)를 충족시키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체감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만족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까지는 화폐소득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만족점을 넘어서면 소득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현금급여보다는 개별적인 욕구에 기초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74년 이스털린 역설이 발표된 이후로 다양한 논리와 분석기법이 동원되어 치열하게 논쟁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소득과 행복에 대한 국내·외적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이 논쟁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어서 일정 소득수준에서 만족점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운영 전략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만족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필요 없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스털린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발전경제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스털린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경제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였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스털린 자신은 '성장'이 아니라 '재분배' 위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연구결과를 과잉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였다(Easterlin, 1974: 119).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부유한 선진국에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기대했던 효용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오히려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체감 행복도가 높은 한편으로 경제성장률도 더 높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Kenny, 1999: 21-22).

최근 한국에서도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여전히

37) 물론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의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2006년 실시된 '삶의 만족도 지수(Satisfaction with Life Index)'<sup>38)</sup> 조사에서는 전 세계 178개국 가운데 102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09년 신경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 실시한 '행복 지구 지수(Happy Planet Index)' 조사에서는 143개국 중 68위, 그리고 2010년 OECD에서 실시한 '더 나은 삶 지수(The Better Life Index) 조사에서는 34개 회원국 중에서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김경동 외(2006)가 조사한 세계 10대 대도시 행복도 조사에 의하면, 서울이 세계 대도시 중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9)</sup> 물론 동아시아 국가가 서양에 비하여 문화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김윤태, 2010),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 참고문헌

### 1. Books and Articles

- 김경동 외 10인. 2007.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2006-연구-34.
- 김윤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Bentham, J. 1948.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New York: Hafner.
- Blanchflower, D. and A. Oswald. 2005. *Happiness and the Human Development Index: The Paradox of Australia*, NBER Working Paper No. 11416.
- Brandt, R. 1967. “Happiness.” pp. 413-414.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ited by P. Edwards. New York: Macmillan.
- Brickman, P. and D. T. Campbell 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in the Good Society.” in *Adaptation Level Theory: A Symposium*, edited by M. Appley. New York: Academic Press.
- Clark, A., P. Frijters, and M. Shields.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75.
- Diener, E. and S. Oishi.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 well-being across nations.” in *Culture and Subject Well-being*, edited by E. Diener and M. Suh. Cambridge, MA: The MIT press.
- Dusenberry, J.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38) University of Leicester의 Adrian G. White 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이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hite(2007)을 참조하십시오.

39) 김경동 외(2007)는 서울, 뉴욕, 토론토, 런던, 파리, 베를린, 밀란, 동경, 베이징, 스톡홀름 등 10개 도시를 조사하였는데, 서울이 거주조건, 환경, 복지, 문화교육, 행복, 자부심, 도시행정 그리고 지역 생활 등 거의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 Easterlin, R. (ed.) 2002. *Happiness in Economics*.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142, Cheltenham: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edited by P. David and M. Reder.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35-47.
- Easterlin, R.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465-484.
- Easterlin, R.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19): 11176-11183.
- Easterlin, R.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 429-443.
- Easterlin, R. 2009. "Lost in transition: Life satisfaction on the road to capitalism."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71: 130-145.
- Easterlin, R.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2): 22463-22468.
- Frey, B and A. Stutzer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35.
- Hagerty, M. and R. Veenhoven.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Inglehart, R. and H-D Klingemann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dited by Diener, E. and E. Suh. Cambridge MA: MIT Press. 165-183.
- Kahneman, D., E. Diener, and N. Schwarz (eds) 1999.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Press.
- Kenny, C. 1999. "Does growth cause happiness, or does happiness cause growth?" *Kyklos* 52(1): 3-26.
- Lane, R.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Yale ISPS Ser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 Layard, R. 2003. "Happiness: Has Social Science a Clue." Lionel Robbins Memorial Lectures 2002/3. London School of Economics, March 3-5, 2003.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ill, J. 1957. *Utilitarianism* (edited by Oscar Priest). Indianapolis: Bobbs-Merill.
- Murray, C. 1988. *In Pursuit of Happiness and Good Governmen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Oswald, A.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1831.
- Oswald, A. 1999. "A Non-Technical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Happiness" mimeo.
- Pollack, R. 1970. "Habit Formation and Dynamic Demand Fun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4): 745-763.
- Pollack, R. 1976. "Interdependent Preferences." *American Economic Review* 66(3): 309-320.
- Robbins, L. 1938..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A Comment." *Economic Journal* 48(192):

635-41.

- Schyns, P. 1998. "Cross National Differences i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1/2): 3-26.
- Sen, A. 1985. *The Standard of Liv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venson, B. and J. Wolfers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 Sumner, L. W. 1996. *Welfare, Happiness, and 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 Tatarkiewicz, W. 1966. "Happiness and Time." *Philosophical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27:1-10.
- Telfer, E. 1980. *Happin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 Tella, R. and R. MacCulloch, 2008. *Happiness Adaptation to Income beyond "Basic Needs."* NBER Working Paper No. 14539.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1): 1-46.
- Veenhoven, R. 2004. "Happy Life Years: A Measure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First Seminar on 'Operationalization of Gross National Happiness', Thimphu, hutan: 287-318.
- Veenhoven, R. and M. Hagerty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3): 421-436.
- White, A. 2007. "A Global Projec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 Challenge To Positive Psychology?" *Psychtalk* 56: 17-20

## 2. Data

- ASEP/JDS Data Bank, World Map of Happiness. URL:<http://www.jdsurvey.com/jds/jdsurveyActualidad.jsp?Idioma=I&SeccionTexto=0404&NOID=103> 검색일 2011년 5월 15일.
- Johnston L. and Williamson, S. "What Was the U.S. GDP Then?," MeasuringWorth, 2011. URL: <http://www.measuringworth.org/usgdp/> 검색일 2011년 5월 15일.
- New Economics Foundation 2009. The Happy Planet Index: A index of human well-being and environmental impact.
- Veenhoven, R. 2005a. Trend Happy Life Years in nations: 1946-2004. Trendreport 2005-1d, World Database of Happiness: <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검색일 2011년 5월 20일
- Veenhoven, R. 2005b. Trend Happy Life Years in nations: 1946-2004. Trendreport 2005-2a, World Database of Happiness: <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검색일 2011년 5월 20일
- World Bank, URL: <http://www.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검색일 2011년 5월 15일.

## 3. Newspaper

- Boston Globe, "A Talk with Betsey Stevenson and Justin Wolfers" by Daniel Akst, November 23, 2008.



## A Study of the Easterlin Paradox: with Special References to Satiation Point

Moon, Jin-Young  
(Sogang University)

The Easterlin Paradox is widely accepted as a pioneer of happiness study in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Psychology, and Sociology. Moreover, it should be noted, the paradox has abundant implications on many social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or social equity', 'basic income' and so forth.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to understand debates around the paradox. For this purpose, the chapter two examines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the Easterlin Paradox, and accordingly the chapter three examines the Easterlin Paradox debates since the early 1990s. In the context of the Easterlin paradox debates, the chapter four scrutinizes the debates around satiation point in income-happiness nexus and duly concludes with som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Key words: Easterlin Paradox, Happiness Economics, Life Satisfaction, Satiation point, Adaptation, Relative Income Hypothesis. Habit Formation, Interdependent Preferences, Aspiration Treadmill, Needs Theory, Needs-Gratification Model, Durable Cultural Components.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of Money.

[논문 접수일 : 11. 09. 14, 심사일 : 11. 09. 29, 게재 확정일 : 11. 11. 22]